

'심슨 가족' 랄프 소사 감독, 임실 방문 '피어나는 기억점빵' 운영

심민 군수와 임실N치즈·문화자원 활용·도깨비 등 글로벌 콘텐츠 협력 모색

"임실치즈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를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만들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도깨비처럼 K팝 아티스트가 팬들을 데려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12일 임실군청과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한 세계적인 장수 애니메이션 감독 '심슨 가족(The Simpsons)'의 연출자로 잘 알려진 랄프 소사(Ralph Sosa) 감독은 임실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랄프 소사는 이날 오전 10시 심민 군수와 만나 임실N치즈와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며,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허심탄회하게 내놓았다.

랄프 소사 감독은 30여 년간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디렉터로, 심슨 가족 등을 연출하며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1999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TV 시리즈' 제작자로 참여한 세계적인 콘텐츠 전문가이다.

이번 임실방문은 임실군이 추진 중인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한 임실N치즈의 스토리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는 국제적 공동 콘텐츠 제작 및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랄프 소사 감독은 심민 군수와 의면담 자리에서 치즈아이랜드를 중심으로 한 임실N치즈의 스토리형 테마 공간 구성과 임실군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캐릭터 굿즈 개발, 해외 홍보 콘텐츠 공동 기획 등 다양한 협업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심민 군수는 이날 랄프 소사 감독과 치즈테마파크를 돌며 "현재 추진 중인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 중 영상관을 만들어 애니메이션 작품을 상영하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세계적인 장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The Simpsons)'의 연출자로 잘 알려진 랄프 소사(Ralph Sosa) 감독은 지난 12일 임실군청과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해 심민 군수와 만나 임실N치즈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며,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허심탄회하게 내놓았다.

것"이라며 "감독의 작품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랄프 감독은 "임실의 이야기는 세계적 확장성이 충분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역사문화관을 방문한 그는 1964년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님(벨기에 이름: 디디에 세스테벤스)의 헌신으로 시작된 임실치즈 산업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지정환 신부님의 스토리와 지역 주민의 노력이 담긴 영상·전시물을 관람하며 "콘텐츠화 가치가 매우 높은 이야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랄프 소사 감독은 평소 한국 전통문화와 캐릭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밝힌 인물로 한국 고유의 도깨비 캐릭터와 전통 설화, 민속 색감을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도깨비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재치 있고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독창적인 캐릭터"라며 "서양에서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문화적인 상징으로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 전통 캐릭터와 임실치즈를 결합한 신규 글로벌 콘텐츠 협업 구성으로 이어졌으며, 임실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군은 이번 랄프 소사 감독의 방문을 계기로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임실N치즈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랄프 소사 감독은 "임실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닌 곳으로, 지정환 신부님의 이야기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며 "임실이 지닌 독특한 문화자원이 국제적 콘텐츠로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IP가 있는 캐릭터를 만들면 애니메이션 작업 등은 물론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심민 군수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인 랄프 소사 감독님의 임실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임실N치즈와 임실의 문화 관광 자원이 글로벌 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이 구체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순창 미리크리스마스' 성료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열린 '2025 순창 미리크리스마스' 행사가 관광객의 높은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 중심 겨울 행사로,

행사 기간 동안 어린이들 동반한 가족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테마파크 일대는 따뜻한 연말 분위기로 물들었다.

행사장에서는 △AR(증강현실) 게임 '부들부들의 산타 찾기', △슈투텐 만들기 쿠키 클래스,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도네이션 플라마켓, △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행사 전반의 완성도를 높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어르신 기억건강 점검 위한 회상공간

남원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기억 회상과 치매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남원시보건소와 협력해 복지관 3층 커뮤니티실에 추억 회상공간 '피어나는 기억점빵'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어나는 기억점빵'은 추억 속 교복과 IP판, 옛 상회소품, 대방분위기 등을 재현한 다양한 추억물품을 배치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과거의 정서를 떠올리며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다. 현재 복지관은 꾸준한 회원 증가와 일일 300명 내외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억점빵도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 속에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보건소와 복지관은 기억점빵을 활용해 지난 11일에 '찾아가는 치매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프로그램은 △인지선별 검사(CIST) △치매예방수칙 안내 △개



발상담 등으로 진행해 익숙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기억 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복지관은 기억점빵 운영을 계기로 어르신 치매예방 사업을 보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2026년부터는 월 2회 정기 치매상담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기억건강을 점검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에 '산림복지 무장에 나눔길' 조성

남원시는 산림복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중 무장에 나눔길 부문에 선정되며, 남원의료원에 '산림복지 무장에 나눔길'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녹색자금(복권기금)을 활용해 보행 약자 등이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등 산림체험 활동시설을 설치, 숲 접근성 향상 및 신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남원의료원에 조성할 '무장에 나눔길'은 총사업비 14억으로 목재데크 1.1km, 황토콘크리트구간 0.4km 등



총 1.5km의 숲길을 남원의료원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한 채 조성했으며,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등의자, 파고라 등 휴게시설물을 곳곳에 설치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 협약

순창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단장 김용남)은 지난 13일 (사)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회장 이원찬)와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증진 및 AI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용남 단장과 이원찬 협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AI 기술 도입 및 적용 방안 정보 교류와 자문, △주민 및 사업 관계자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공동 운영,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



사, △농촌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등이다. 순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앞서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AI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총 20여 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이번 협약은 선행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AI 인재 양성과 농촌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2024년도 시군 지역 사회보장계획 평가 '우수'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도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는 제5기(2023~2026) 지역 사회보장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남원시가 보여준 민·관 협력 기반의 충실한 복지 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결과,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실행력, 사업성과, 민관 협력도,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남원시와 익산시가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특히, 남원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생애주기별 돌봄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읍면동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 강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고도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복지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 송년작품발표회 개최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관장 정화성)이 지난 12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지역 주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작품발표회 '올해도 잘 놀았다! 이제 발표할 시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관촌원어린이집 원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복지관에 꾸준한 지원을 이어온 감동준 후원자에게 후원자상을,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해 온 최영순·곽규중 강사에게 각각 자원봉사자상과 공로상이 수여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발표회는 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작품 전시와 무대 발표를 통해 선보이는 자리로, 어르신들의 열정과 성취를 공유하는 뜻깊은 노인문화 축제로 진행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